



보도자료

- **교통안전팀** 팀장 김완중
Minister
 사무관 박근복
- ☎ 02-2110-8681/8683
- pkb34@moct.go.kr
- 12월 19일 배포(총 10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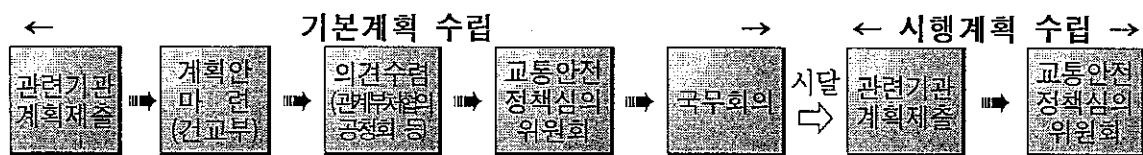
· 12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교통안전,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”

-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마련(2007년-2011년)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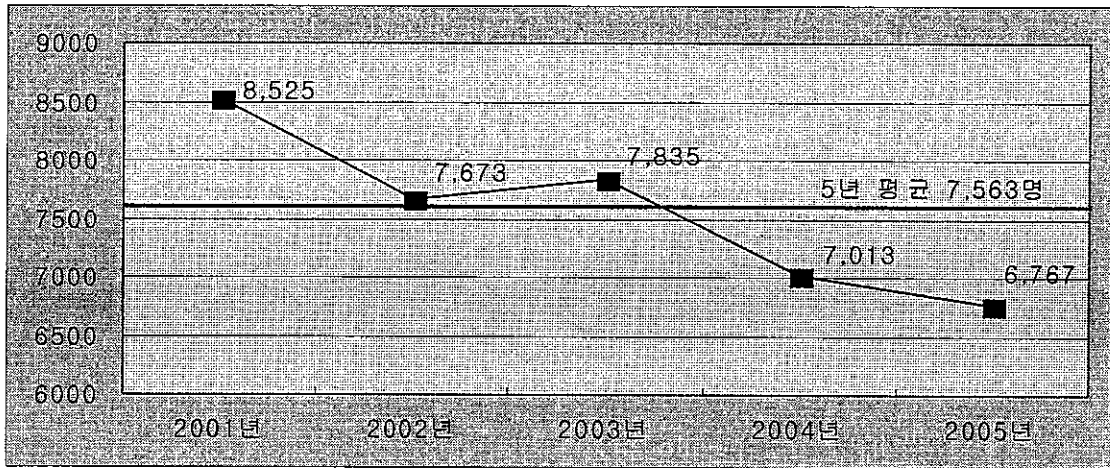
- 정부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2011년까지 1.9명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OECD 중위권까지 제고하는 「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(2007~2011)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.
-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도로·철도·항공·해양부문의 사고 원인 및 향후 교통안전여건 분석, 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실천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,
 -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매년 「교통안전시행계획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.

※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흐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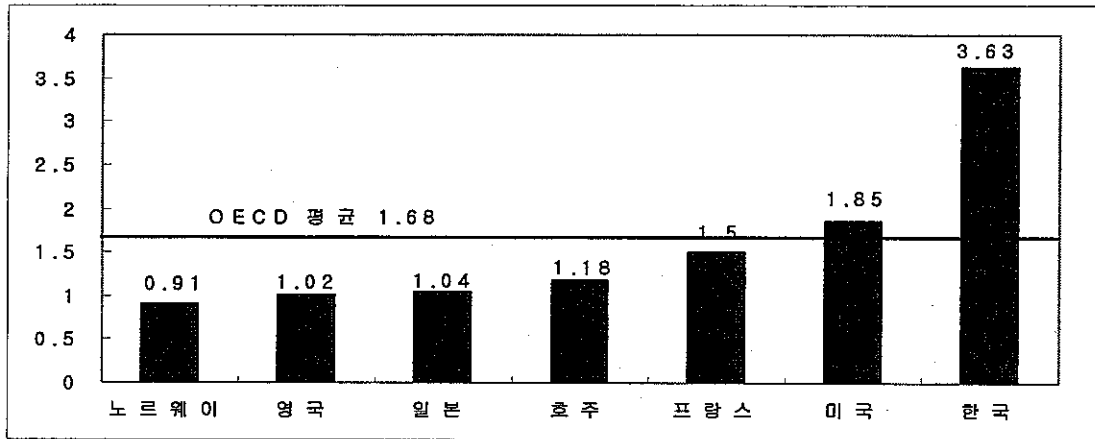
- 먼저 지난 제5차 기본계획기간 성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1년 8,525명에서 2005년 6,767명으로 20.6% 감소함으로써, 교통안전도는 한층 제고되었다.

※ 제5차기본계획 기간중 사망자수 추이



-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달성 목표로는,
 - 우선 계획기간 중 도로·철도·해양·항공교통부문별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인적요인, 시설·환경 및 차량(항공기·선박 포함) 요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수립방향으로 설정하였다.
 - 특히 교통사고 취약 부문인 어린이 및 노인 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사고 감소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.
 - 또한 2011년까지 5년 동안 달성할 기본목표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5년 3.4명('04년 27위, '05년 25위 추정)에서 2011년 1.9명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가입국가중 중위권(17~18위권)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.

※ 우리나라 교통안전도 수준(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, 2004년)



□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

○ 우선,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행기록 보관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과속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행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-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20세 이하,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게 적용기준을 차등화하여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

- 버스·택시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운행기록계의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하여 사고원인 분석에 적극활용할 계획이다.

※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운행기록계) : 운송사업용자동차, 고압가스 운송·위험물 운반·쓰레기 운반 전용·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자동차

- 또한, 취학 전·후 아동에 대한 **교통안전 교육**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이버 교통안전체험관 등 **체험교육 기회**를 확대하는 한편, 운수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시행으로 **교통안전의식을 높여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요인**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.
- 둘째,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 운영에 필요한 **교통안전 시설**을 지속적으로 정비·확충하고, 교통 시설과 수단에 대한 **교통안전진단**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.
- 2011년까지 4,200개소의 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 신호등을 교차로 건너편에서 건너기 전으로 위치변경을 추진하는 등 도로시설의 안전도를 개선하여 시설·환경 요인에 따른 교통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며,
- 교통시설 설치자나 교통수단 운영자가 외부전문기관의 **교통안전진단**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.
- 셋째, 자동차 타이어 등 부품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품인증제를 도입하고, 노후 선박·철도를 교체하는 등 차량(항공기·선박 포함)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- 넷째,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보호구역 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부문에 대한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.
 - 201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4,854개소 개선하고,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며, 보행자 통행 시설을 국도 450km, 지방도 1,748km를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다.
 - 또한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사고감소 대책으로 사업용 운전자 체험운전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다섯째, 교통사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, 교통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.
 - 교통사고 발생 전·후의 교통사고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주요 교차로에 확대 설치하고,
 -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.

○ 마지막으로, 제6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할 계획이며, 관련 중앙행정기관별로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.

- 특히, 지자체별로 매년도 목표 달성 정도와 대책을 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토록할 계획이며, 현행 시·도 단위까지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시·군·구단위까지 확대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의식과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.

□ 정부에서는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면 2011년까지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(OECD 국가중 중위권)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.

- 참고 1.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
2. 2011년의 교통안전지표
3.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체계

《참고1》

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

1. 교통사고 발생현황

- 과거 10년('96~'05)간 총 250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9.3만명이 사망하고 368만명이 부상

※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현황(단위 : 건, 명, %, △감소)

구 분	1996	1997	1998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연평균 (%)	
발 생	지동차	265,052	246,452	239,721	275,938	290,481	260,579	231,026	240,832	220,755	214,171	△2.3
	철 도	1,051	937	909	707	580	512	544	640	550	301	△14.4
	지하철	32	29	47	54	60	59	56	103	85	87	11.8
	선 박	661	840	772	849	634	610	557	531	804	658	△0.1
	항공기	2	4	3	3	3	5	4	5	3	5	10.7
	계	266,799	248,262	241,452	277,551	291,758	261,765	232,187	242,111	222,158	215,181	△2.4
사 망	지동차	12,653	11,603	9,057	9,353	10,236	8,097	7,222	7,212	6,563	6,376	△7.3
	철 도	352	337	326	279	225	205	229	247	192	151	△9.0
	지하철	21	20	23	35	27	40	36	256	51	52	10.6
	선 박	147	227	143	164	149	174	185	119	205	186	2.6
	항공기	1	232		12		9	1	1	2	2	8.0
	계	13,174	12,419	9,549	9,843	10,637	8,525	7,673	7,835	7,013	6,767	△7.1
부 상	지동차	355,962	343,159	340,564	402,967	426,984	386,539	348,149	376,503	346,987	342,233	△0.4
	철 도	766	664	609	429	347	297	340	558	386	199	△13.9
	지하철	12	9	24	19	33	20	20	185	37	35	12.6
	선 박	46	58	30	129	40	72	55	114	250	113	10.5
	항공기	-	26	70	74	3	8	2	4	1	4	△20.9
	계	356,786	343,916	341,297	403,618	427,407	386,936	348,566	377,364	347,661	342,586	△0.5

자료 : 건설교통부, 해양수산부(중앙해양안전심판원), 경찰청, 철도공사

2.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

① 도로교통사고

- **유발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려우나, 일반적으로 인적요인·도로환경요인·차량요인으로 분류하여 구분**

※ 선진국 사례분석(영국, 미국)

· 인적요인 94~95%, 도로환경요인 28~34%, 차량요인 8~12%

*인적요인 : 단독 65~57%, 인적+도로 24~27%, 인적+차량 4~6%, 도로+차량+인적 1~5%

*도로환경요인 : 단독 2~3%, 인적+도로 24~27%, 도로+차량 1~1%, 도로+차량+인적 1~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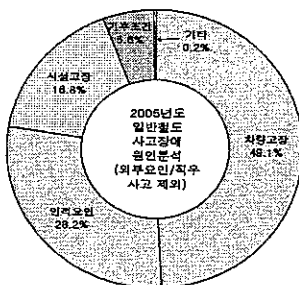
*차량요인 : 단독 2~2%, 인적+차량 4~6%, 도로+차량 1~1%, 도로+차량+인적 1~3%

* 「출처」 : 유럽교통부장관회의(ECMT 198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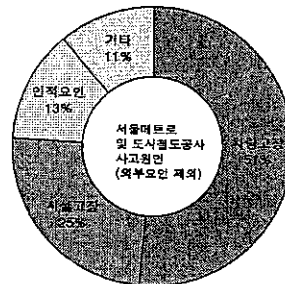
②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

- 도로교통사고와는 달리 인적요인보다 **차량 요인**이 크게 나타남

<일반철도 사고원인분석>



<도시철도 사고원인분석>



③ 항공교통사고

- 인적 요인인 조종사 과실 66%, 정비 과실 18%로 대부분을 차지 ('94~'04년까지의 항공사고 36건을 분석)

④ 해양교통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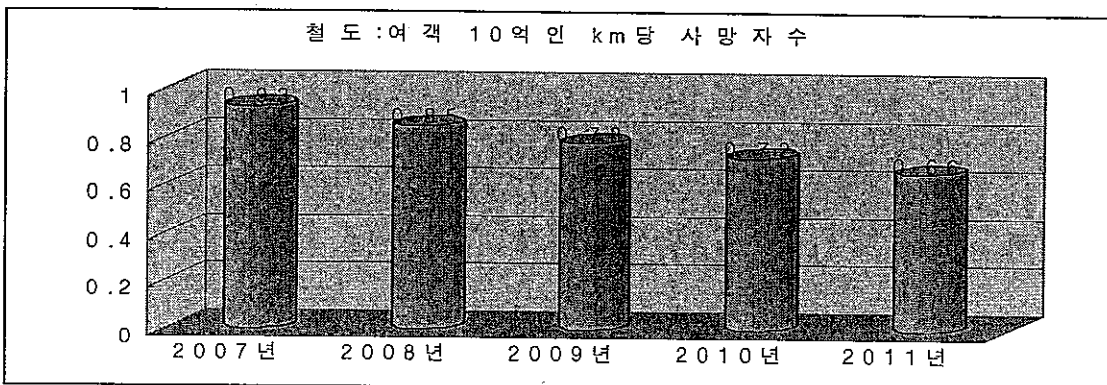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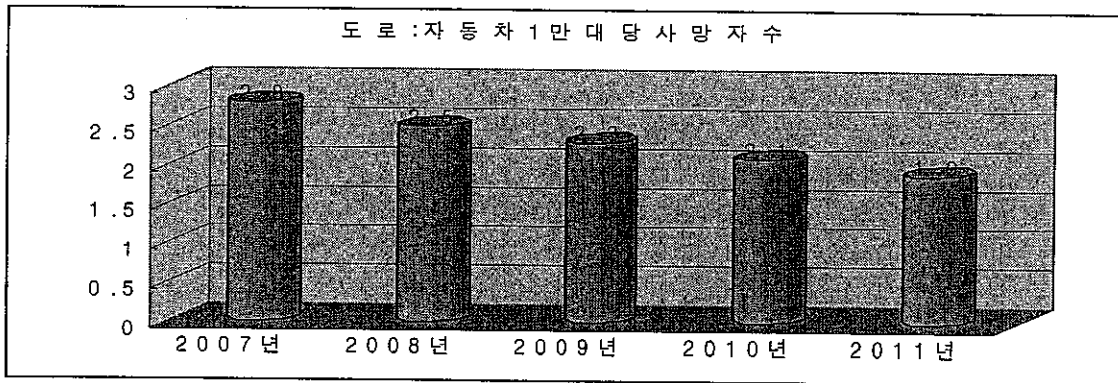
- 항해 경계소홀·정비점검 소홀 등 인적 요인이 47.4%, 기관고장 등 선체요인이 18.3%, 기상악화 등 환경요인이 13.4%를 차지

《참고 2》

2011년의 교통안전지표

부문별	지표	현재 ('05년)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년
도로 교통	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(명)	3.4	2.8	2.5	2.3	2.1	1.9
	*(교통사고 사망자수, 명)	6,376	5,600	5,250	4,900	4,600	4,350
철도 교통	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수(명)	1.1	0.93	0.85	0.78	0.72	0.66
항공 교통	정기항공운송 누적평균 1억 운항-km당 사망사고율(건수)	0.044	0.039	0.037	0.035	0.033	0.031
해양 교통	해양사고 사망자수(명)	186	165	160	155	150	145

제6차 기본계획 기간중 주요 지표 변화추이



《참고 3》

제6차교통안전기본계획 체계

